

세월호 참사 10년... 광주극장 '위로·연대'의 영화

내일 '세월:라이프 고즈 온' GV 장민경감독 초대, 관객과 대화 피해자 가족 직접 만든 '바람...' 4·3항쟁 76년의 세월 '돌들이...'

세월호 참사 10년. 광주극장이 위로와 연대를 위해 함께 걷는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념하는 영화가 잇따라 개봉한 가운데 상영과 함께 관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최근 개봉한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은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씨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폭력 등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전하는 세상 끝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는 세월호 희생자 고 유예은 아버지 유경근씨 사회로 2018년 1월11일~4월 20일 진행됐던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CBS 목동 사육 촬영)'을 배경으로 그날 이후 유가족이 견뎌온 세월에 집중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 무력하지만 한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분투해온 유가족 모습은 용기와 위로를 선사한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폭력

으로 이한열 열사를 떠나보낸 고 배은심 여사 이야기가 더해져 초월적인 연대의 메시지를 던지며 깊은 울림을 더한다. 광주극장은 6일 오후3시40분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을 연출한 장민경 감독을 초대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진행은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지정남 배우가 맡는다.

11일 개봉을 앞둔 '바람의 세월'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10년의 세월과 간절한 바람을 담은 아카이브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를 공동 연출한 문종택 감독은 세월호 참사로 단원과 2학년에게 재학 중이던 딸을 잃은 아버지로, 평범한 시민이던 그는 2014년 여름부터 카메라를 들고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일정을 기록해 왔다. 5000개 영상과 3654일 기록은 영화 '바람의 세월'로 재탄생했다.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17일 개봉하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4·3 이후 76년이 지나야 밝혀지는 수형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들이 몸담고 있던 침묵의 땅 제주도의 풍광을 또 작하는 카

메라의 눈맞춤을 담아낸 영화다. 7년 동안 치밀하고 성실한 면접 조사를 통해 채록한 4·3 수형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시대가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달된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융감한 기러

기상 수상, 제18회 아마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뉴 아시안 커런츠 부문 공식 초청 등 국내외의 우수 영화제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같은날 개봉하는 '정순'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결코 나다움을 잃지 않고 곧은 걸음으로 나가려는 '정순'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영화다. 장편 데뷔작인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 감독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편견을 가시화했으며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제7회 아스완국제여성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 전 세계 19개 영화제 초청 및 8관왕을 달성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중년 여성이 성범죄를 겪었을 때,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 취약계층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도 담고 있지만 주인공 '정순'에 더 집중해 스스로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땅에 쓰는 시'는 선유도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경춘선 숲길, 서울 아산병원 등 모두를 위한 정원을 만들어온 조경가 정영선의 땅을 향한 철학과 내일의 숲을 위한 진심을 담은 다큐

멘터리다. '이타미 준의 바다',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등 웰메이드 건축 다큐멘터리를 배출해온 정다운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한국 1호 국토개발기술사(조경)를 획득한 최초 여성 기술사인 정영선 조경가 개인 정원부터 추억이 담긴 공원과 핫플레이스 등 그가 탄생시킨 공간을 담아내며 눈과 귀가 즐거운 풍경을 전한다.

홍상수 감독 31번째 장편영화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2012년 '다른 나라에서' 이후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영화 '여행자의 필요'도 오는 24일 개봉한다. 홍상수 감독은 '여행자의 필요'로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을 5번째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상영작 시간표는 광주극장 카페(<https://cafe.naver.com/cinmagwangju/16644>)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2023년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경연에 참가한 뮤지션이 열린 공연을 펼치며 관객과 호흡하고 있다.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참가자 모집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5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총 상금 1억... 수상자 지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10월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제 음악경연 페스티벌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참가할 뮤지션을 모집한다.

올해 3회를 맞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 동구와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다. 올해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는 총 1억원 상금의 버스킹 경연대회와 더불어 수상자 후속지원, 음악산업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페스티벌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경연 본선 진출팀(32팀)에는 경연기간 숙박 및 축제장 일원에서의 버스킹 공연 지원과 축제 공식 창구를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국내 수상팀 중 2개 팀에는 해외 음악축제·마켓 참가 지원 또는 공연영상 제작 등을 지원해 '광주 버스킹 월드컵' 출신 뮤지션으로서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또 동구 주요 거점을 활용한 네트워킹 행사, 관광 프로그램 등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참가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경연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뮤지션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곡은 장르 제한이 없으며 창작곡, 기성곡 모두 가능하다. 단 2023년도 본선 진출팀 또는 역대 수상자는 참가할 수 없다.

총 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원으로 총 9개팀에 시상하며 1위인 '골든 버스킹상'에는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버스킹 뮤지션은 오는 5월 3일까지 광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buskingworldcup.com) '참가신청'란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 팸플릿 또는 멘트가 삽입된 라이브 영상 링크를 기재해야 한다.

온라인 예선(5월)을 거쳐 선발된 32팀은 축제 기간인 10월 3~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경연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라이브 경연에서는 국내·외 음악 전문가 심사뿐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투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선인 기자

“추억의 고전영화 보러 오세요”

4~10월 'ACC 양반극장' 오픈 11일 '고교알개' 무료상영 노인 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 재단)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한국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2024 ACC 양반극장'을 진행한다.

'ACC 양반극장'은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노인 문화예술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기관협력사업으로, 매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일 '고교알개'를 시작으로, 6월 13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8월 14일 '맨발의 청춘', 10월 10일



'미워도 다시 한 번' 등 4월부터 10월까지 격월로 총 4회 진행된다.

'ACC 양반극장'의 첫 상영작인 석래

명 감독의 '고교알개(1977년)'는 1970년대 10대들의 이야기를 그린 하이틴 영화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70년대 학생시절의 사랑, 우정, 낭만, 용서 등 인생의 아름다웠던 고교시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상영시간은 총 90분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역 어르신 대상 우선 사전접수하며, 일반인은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ACC 양반극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해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광주에중·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맞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 재단)은 광주에중·고등학교와 지난 3일 광주에중·고 교장실에서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예술감수성 제고 △문화예술 행사 연계 추진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주회 개최 등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